

연명치료 거부...광주·전남 의향서 등록 급증

존엄사법 시행 2년간 1만 3030명 서명...70대가 절반 가족 등 보호자 동의 없으면 불가...법안 재조정 필요

윤모(76)씨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사를 찾아 '연명치료 거부서'를 썼다. 그는 "살 만큼 살았는데 인공호흡기까지 끼고 살 수 없고 짐이 되고 싶지도 않다"며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온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공개했다. 자녀들 의견은 갈렸다. "존중하겠다"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절대 동의 못한다"며 화를 내기도 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거부서)'를 작성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자 본인의 의지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달 말 기준 광주·전남지역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이들은 광주 6345명, 전남 6685명 등 1만 3030명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성인이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됐을 때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것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지난 2018년 2월 도입됐다.

광주·전남의 경우 2월 33명(광주 17명·전남 16명)이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4월 83명(49명·34명)→ 12월 350명(155명·195명) 등 꾸준히 참여자가 늘었고, 지난해부터는 499명(2월, 261명·238명)→ 599명(5월, 260명·339명)→722명(6월, 366명·356명)→893명(7월, 466명·427

명) 등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 12월에는 1587명(760명·827명)이 참여하는 등 연명치료 거부서 작성자가 한 달 동안에만 1000명을 넘어섰다.

광주보다는 전남의 연명치료 거부서 작성인원이 많은 것은 전남지역의 고령화 인구가 더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환자 스스로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으로도 56만 9687명이 관련 서류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43만 3544명이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등 전년도에 비해 6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도 지난달 4만 4933명이 동의,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220명)보다 3배나 많았다. 작성자들의 대부분은 70대(47.5%)였다.

연명치료 거부서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소·의료기관 등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161곳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환자가 미리 작성해도 보호자인 가족들 간 동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연명치료를 중지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제19조 2항)은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공급은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통증조절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으로 인한 환자와 보호자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의료계에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부모들이 많은데다, 불필요한 연명치료보다 '존엄한 죽음'을 맞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오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은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 오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천 활짝 핀 영춘화 영상 10도를 웃도는 봄날씨가 이틀째 계속된 11일, 광주천변에 영춘화가 만개해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북구의회 일곡지구 매립 폐기물 처리 논의 본격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

광주시 북구의원들이 일곡지구에 묻혀 있는 15만 t 규모의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논의에 나섰다.

11일 광주시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 259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김경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상정된 '일곡지구 매립폐기물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북구의회는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7명 이내

로 특별위원회를 꾸려 일곡지구에 묻혀 있는 폐기물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일곡동 매립쓰레기는 지난 2018년 12월 청소년 문화의 집이 들어서 일곡동 3 근린공원 부지 터파기 공사 중 발견됐다. 광주시와 북구는 조사 과정에서 제 2근린공원 9만 t, 제 3근린공원 6만 t 등 15만 t 규모의 쓰레기가 매립된 사실을 파악했다.

북구는 옛 생활폐기물 매립장소(41만 2000㎡ 규모)였던 일곡동 일대에 1990년 초 매립된 생활폐기물도 추정하고 있다.

일곡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현 LH)가 운동장 매립장으로 보내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를 현 제2·제3근린공원 부지에 매립했다는 게 광주시와 북구 판단이다. 당시 광주시가 생활폐기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일부만 운동장 매립장으로 보내졌다.

일곡지구 주민들은 이후 '일곡지구 불법 매립 쓰레기 제거를 위한 주민모임'을 꾸려 해결을 요구해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초·중 학력인정 문해교육 광주시교육청 570명 모집

광주시교육청이 '2020년 초·중·고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학습자 570명(초등과정 330명, 중학과정 240명)을 모집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여러 사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을 마치지 못한 만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교육을 받을 기회와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719명의 학력인정자를 배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23 달뜨기 21:39
해질 18:11 달집 09:28

봄을 알리는 비
기압골 영향으로 비 오는 곳 있겠다.

광주	비	9/13	보성	비	6/12
목포	비	8/10	순천	비	7/13
여수	비	9/12	영광	흐림	8/12
나주	비	8/12	진도	흐림	9/13
완도	비	10/14	전주	비	9/14
구례	비	7/12	군산	비	8/10
강진	비	7/13	남원	비	5/11
해남	비	9/13	흑산도	흐림	8/14
장성	비	7/13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안바다	남~남서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북)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면바다(남)	남~남서	1.0~2.0	서~북서	1.0~2.0
남해서부	안바다	남~남서	0.5~1.5	서~북서	0.5~1.5
	면바다(서)	남~남서	1.5~2.5	서~북서	1.5~2.5
	면바다(동)	남~남서	2.0~3.0	서~북서	2.0~3.0

◇생활지수

보통	감기
보통	뇌졸중
좋음	미세먼지

◇물때

지역	간조		만조	
	시각	수위	시각	수위
목포	09:28	04:13	21:57	16:49
	05:02	11:29	17:28	23:45

◇주간 날씨

날짜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18(화)	19(수)
날씨	☁	☁	☁	☁	☁	☁	☁
기온	8/14	8/12	4/16	5/6	-1/3	-2/5	-2/8

“지자체 장학금 명문대 구별 지급은 차별”

인권위원회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특정 명문대학교의 의·치·한의예의 진학(제학)을 중심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장학회 등 34개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에 표명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전국 군(郡) 단위 38개 장학회가 해당 지역 학생이 이른바 명문대·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장학금

지급 기준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포스텍·차·의·한의대입학생들에게 명문대 입학 장학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는 식이다.

인권위는 "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34개 장학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지역 인재양성 등의 명목으로 특정학교·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이는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5·18문학상 신인상 공모...3월 25일까지 접수

2020년 5·18문학상 신인상 작품을 공모한다.

5·18기념재단은 한국작가회의, 계간 '문학달'과 공동주최하는 '2020 5·18문학상 신인상' 작품을 오는 17일부터 3월 25일까지 공모접수한다.

2005년 제정된 5·18문학상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새로운 관점

으로 이를 계승할 수 있는 작품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다.

응모 분야는 시, 소설, 동화 부문이며, 미등단 신인작가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5편 이상 10편 이내, 소설은 70매 내외(200자 원고지 기준), 동화는 30매 내외(200자 원고지 기준)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
담
전
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